

트럼프 '해방 프로젝트' 보류...美·이란 협상재개 나서나

최대 압박후 협상으로 급거 국면 전환 '트럼프식 패턴' 재연 분석 해방 프로젝트, 美도 부담...위협 비해 호르무즈 통과 상선 극소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상선들의 탈출을 돕는 '해방 프로젝트' (Project Freedom)를 시행 이틀째에 전격 중단한다고 선언하면서 또 다시 국면의 급전환을 도모하는 모양새다.

압박 강도를 최고치로 끌어올린 뒤 협상을 모색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 패턴이라는 분석과 함께 해방 프로젝트가 미국에도 부담이 적지 않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진전을 해방 프로젝트 일시 중단의 이유로 제시한 만큼 양측이 협상에 속도를 낼지가 최대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해방 프로젝트를 잠시 중단한다고 돌연 선언했다.

중재국 파키스탄을 비롯한 각국의 요청이 있었고 이란 대표단과의 논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란도 해방 프로젝트의 일시 중단에 동의했다고 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서 대이란 해상 봉쇄에 '해방 프로젝트'까지 추가하며 압박 강도를 한껏 끌어올렸다가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셈이다. 최대치의 압박으로 상대방을 몰아세워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는 '트럼프식 협상 패턴'이 재연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해방 프로젝트는 이란에 대한 압박 강화 차원에서 동원된 작전이지만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부담도 작지 않았다.

개시 첫날인 4일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 고속정을 동원한 공격을 시도해 미군이 대응에 나서야 했던 상황은 해방 프로젝트가 대이란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는 동시에 미국에도 위험 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는 평가다.

이란의 공격이나 해협에 부설된 기뢰로 미군 군함이나 상선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출구전략이 마땅치 않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큰 고민거리가 생긴다.

미 군함의 상선 근접 호위가 포함되지 않은 해방 프로젝트의 실효성을 놓고도 애초부터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었다. 이틀째인 이날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상선은 3척에 불과하다고 미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의 확실한 성과를 담보하기엔 위험이 큰 해방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결정을 통해 '합의를 추구하는 쪽'이라는 명분을 확보하고 추후 이란의 협조 여부에 책임을 묻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장관의 이날 중국 방문에 맞춰 해방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하면서 중국의 이란 설득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국의 역봉쇄로 중국도 타격을 입고 있고 다음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도 예정된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에 기대를 거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이란 대표단과의 논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양측의 돌파구 마련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커질 수밖에



미국과 이란이 충돌한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사 HMM 운송 선박이 폭발과 화재 사고를 당한 지 이틀째인 5일 사고 원인에 대한 의문을 중심으로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광저우에서 열린 HMM 나무호의 진수식. 연합뉴스

않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이틀 전인 3일 이란의 수정안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할 정도로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히 컸던 상황에서 이란의 대폭 양보가 있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합의를 원하는 미국과 약당 이란'의 구도를 전제로 국면 전환에 진력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2월 28일 시작된 대이란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Epic Fury)가 종료됐고 이제는 해방 프로젝트 단계라면서 해방 프로젝트가 방어적 성격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의 브리핑이 끝나고 몇시간 되지 않아 해방 프로젝트의 일시 중단 발표가 나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역시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전날 이란의 공격에도 휴전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 군함과 상선을 공격하면 파괴적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미국은 이란과의 전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방 프로젝트를 잠시 내려놓더라도 대이란 해상봉쇄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란은 미국의 해상봉쇄 해제가 협상에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 부장관, 한국 비자개편 중 "韓 인력이 미국 와야 기술 습득 가능"

크리스토퍼 렌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5일 (현지시간) 한국 당국과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의 비자 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다.

렌도 부장관은 이날 메릴랜드주 내셔널허버에서 열린 대미 투자 유치 행사 '셀렉트USA'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와 체결한 일부 협정은 양국 이익을 위해 한국의 자본과 노력이 미국에서 활용될 중요한 기회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인력 교육이나 기타 목적으로 한국에서 일정 수의 인력이 미국으로 와야 한다"며 "우리는 현 비자 제도가 이런 특별한 목적을 가진 방문객들을 환영하거나 수용하도록 설계돼 있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미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명 이상이 체류 자격 문제로 구금된 사태 발생후 자신이 한국을 방문해 당국과 이 문제를 직접 논의한 사실을 거론하며 "우리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비자 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관세 협상 과정에서 3천 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후속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국의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두고 미 루이지애나주 LNG 수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 등이 거론된다.

다만 한국의 대미투자가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 집단 구금 사태로 촉발된 비자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